

장백산천지

제 61 호

2007년 11월 30일

금요일

중공의 멸망은 필연적이다!

력사상 전제왕조는 통치를 오래하던지 짧게 하던지를 막론하고 나중엔 모두 멸망을 면치 못했다. 폭정으로 세상에서 뽑내던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한후 15년을 통치했고 오래동안 통치한 만청이라해도 267년이였다. 전제통치의 공동한 특점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사람에 의거했을 뿐 법에 의거하지 않았다. 감독과 평정이 없었으니 권리는 당연히 부패해졌고 왕조는 흥성하던데로부터 점차 쇠퇴해져 나중엔 멸망되였다. 중공전제통치는 력사상의 봉건전제에 비교해보면 더욱 사악하고 잔인하여 시대와 백성을 리탈하였으므로 중공의 멸망은 미리 정해져있다.

공산당 학살이 출현한 그날부터 “제 1 국제”, “제 2 국제”, “제 3 국제”, “제 4 국제”에 이르기까지 선후로 파산되었고 공산주의는 인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 공산당진영은 소련을 대본영으로 하고 동유럽 8 개국을 대기초로 했다. 80년대말,

90년대초에 소련과 동유럽은 해체되었고 독재는 와해되었으며 민주로 대체되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당통치는 짧아서 40 여년이고 길어서 70 여년이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공산주의는 중국에 맞지 않았다. 텅빈 리상, 미혹시키는 구호, 미칠듯한 개인숭배속에서 8천만 중국사람들이 비명에 죽었으며 목전 다당제 경쟁의 대세속에서 《큰가마밥을 먹는》 중공일당제는 점차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

하늘에 사무치는 중공의 죄악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중공의 통치가 길수록 인민에게 가져다 주는 재난은 더욱 커진다. 중공은 죽어가는 운명을 만구하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악몽에서 깨어난 중화민족이 중공을 심판하는날, 모든 고통과 치욕을 지워버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자!

“9 평” 발표 3 주년을 맞이하여 퇴당, 단, 대성명

2007년 11월 19일은 <9 평공산당> 발표 3주년이다. 3 퇴인수는 이미 2860 만에 달한다. 아래에 대기원 퇴당인터넷사이트에 발표된 3 퇴성명 몇편을 골라 싣는다.

생명의 가치

지금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어떤 농민은 신장을 팔아 학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탐관오리들은 돈을 물쓰듯하고 있다. 교육은 학부형들을 미치게 하고 의료는 목숨을 잃게 하니 고난에 허덕이는 동포들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중공에서 퇴출하고 중공을 해체해야만이 잘살 수 있으며 생명은 가치가 있다.

녕병 등 43명 2007-11-12

아름다운 생명을 선택

중공은 건국 이래 력차의 운동을 일으켜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했다. 중공악당이 있으면 인민들을 행복할수 없고 나라는 흥성할수 없다. 우

중국북방 대도시에 나붙은 진상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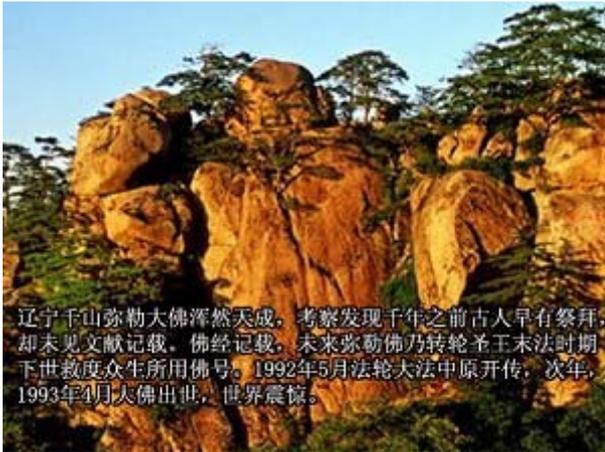
2007년 11월중순, 중국북방 모 대도시에 나붙은 일부분 탈당표어이다.



리는 악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3 퇴해야만 아름다운 생명과 미래가 있을수 있다.

문방, 왕계분 (다음호에 계속)

천산의 미륵대부처상



1992년 5 월에 사부님께서 법륜대법을 중원에 전한지 1 년도 안되는 1993년 4 월, 료녕 안산의 천산풍경구에 천년거석으로 이루어진 미륵대부처상(윗 사진)이 정식으로 공개되자 전국을 놀래웠다.

높이 70 메터, 어깨너비 46 메터, 머리높이 10 메터, 머리넓이 근 12 메터, 귀길이가 5 메터인 미륵상을 바라보면 마치 거인이 못산정에 앉아 있는 것만 같다. 두눈, 두손, 가슴에 드리운 부처구슬, 배꼽을 똑똑히 볼 수 있고 둥글고 빛나는 머리높이는 3 층집 같았고 온통 푸른 이끼가 자란 짙은 눈썹아래에 정기 도는 두눈과 오관의 위치는 비례가 알맞고 펼쳐진 왼손가락은 무릅우에 올려놓았고 주먹을 쥔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제일 아래부분엔 넓고 큰 발이 놓여있었다. 이 미륵부처상의 모든 것은 하늘이 만든 것이어서 실로 장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하여 법의 위력이 차넘쳤다. 불경에 기재된 데 의하면 말법시기에 전륜성왕이 미륵불로 전생하여 인간에서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도한다고 하였다.

“서법전람회”를 꾸린 것이 죄가 되나?



산둥성청도시 파룬궁 학원이며 저명한 서법가인 류석동(刘锡铜, 사진)은 금년 11 월 3 일부터 8 일까지 청도시출판예술관에서 서법예술전람회를 꾸려

관중들의 환영과 시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11 월 12 일, 청도시 “610”사무실의 지시를 받은 상담로파출소 악경들은 그를 랍치해가고 컴퓨터와 프린터, 서법작품들을 빼앗아갔다. 이튿날, 상담로파출소에서 그에게 “사고를 리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터무니 없는 죄명

“남을 위해 살다” 평화상을 수여받은 장취영(张翠英)

2007년 10 월 27 일, 시드니 하빈극장에서 “세계 평화연맹”은 파룬궁학원이며 저명한 여화가인 장취영에게 “남을 위해 살다”는 평화상을 수여했다. (사진) 그는 40 여개 국가에서 선후로 장취영미술작품전시회를 꾸렸다. 1999년에 그는 파룬궁을 런마했다는 루머로 중국에서 8 개월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2002년 1 월, 그는 자신의 그림을 판돈 3 천달러를 흔쾌히 삼림화재 난민들에게 기부했다.



체코 국경일에 진상을 알린 유럽천국악단



2007년 11 월 17 일, 체코 국경일에 유럽 파룬궁 학원들로 조직된 천국악단은 프라하에서 시위행진에 참가하여 우렁차고 장엄한 <파룬따파 좋다> 등 악곡을 연주하면서 파룬궁의 진상을 알렸다. (왼쪽 사진)

“전산련국제미술전람작품집”을 뉴질랜드 국회에 보관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대법제자법증 실촬영전람회”가 열렸다. 뉴질랜드여왕이 친히 파견한 총독 Anand Saty 을 회견할때 “전산련국제 미술전람작품집”을 그에게 증정하고나서 중공이 박해진상을 이야기했다. 그는 진상을 상세히 듣고 나서 <옛 관례대로 이 레물을 국회에 보관하여 국회의 모든 사람들이 열독하고 감상하게 하겠다.> 고 말했다.



을 씌워 한달간의 형사구류를 시킨후 청도시 대신 제 1 간수소에 보냈다. 사악한 중공은 멸망의 마지막 광기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중공에서의 탈당은 곧 우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